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Email : 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cok@gmail.com

[제1독서] 탈출 20,1-17(또는 20,1-3.7-8.12-17)

[화답송] 시편 19(18), 8.9.10.11(◎요한6,68c 참조)



(후렴)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기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제2독서] 1코린마1.22-25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집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요한 3.16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요한 2,13-25

[성가안내]

- 입당성가 [118] 골고타 언덕
- 봉헌성가 [222] 주여 나를 가없이 보아주소서.
- 성체성가 [181] 신비로운 몸과 피
- 파견성가 [119] 주님은 우리 위해

미사봉헌

연기사	봉헌
전마사자 카타리나 김화자 소화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강 마리아,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 설정숙	김종화 필립보 가족 김영숙 카타리나 김경련 울리다 박인영
생기사	봉헌
박수정 크리스티나, 박수진 줄리아 민덕미 안젤라	양미숙 마리아 민완준 필립보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3월 7일	이지훈 아네스	박기웅 사도요한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양미숙 마리아
3월 14일	백이백 아오스딩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민재인 데레사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유정옥 유스티나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사순제 3 주일 성경 묵상

(탈출 20,1-17/1코린 1,22-25/요한 2,13-25)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성전 관리들과 환전상들이 성전세와 희생 제물에 관한 규정을 악용하여 온갖 횡포를 부리자.

예수님께서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하고 외칩니다.
이는 올바른 생활과 참된 회개 없이, 성전을 그저 하느님의 은총을 사고파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하고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었지요.

따라서 우리 몸은 성령의 궁전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장엄하고 거룩하게 꾸미는 것은 우리의 몸은 성령의 궁전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신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을 계발하고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이를 자신을 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요한 2,16). 교회가 하느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얼마나 불쌍사나워지는지요! 이 말씀은 아울러 하느님의 거처이신 우리의 영혼에 대한 위험들을 물리치도록 도움을 줍니다. 곧 우리의 이익만을 쫓아 살며 우리 영혼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고 연대적인 사랑의 장소로 만들도록 말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오늘처럼 하느님이 필요한 날은 없었다.”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구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아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 성 베네딕도의 규칙서 4장 -

착한 일의 도구들은 무엇인가?

실없는 말이나 웃기는 말을 하지 말라.
많은 웃음이나 지나친 웃음을 좋아하지 말라.

거룩한 독서를 즐겨 들어라.

기도에 자주 열중하라.

지난날의 자기 잘못을 눈목과 탄식으로 매일 기도중에

하느님께 고백하고,

그 잘못을 앞으로 고쳐라.

육체를 욕망을 채우지 말라.

자신의 사사로운 뜻을 미워하라.

모든 일에 있어 아바스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며,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비록 아바스 자신이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실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그렇게 하라.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으로 불리우기를 바라지 말고,

참으로 성인으로 불리어지도록 먼저 성인이 되라.

하느님의 계명을 매일 행동으로 채워라.

순결을 좋아하라.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

나쁜 열정을 가지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다투기를 좋아하지 말라.

자만심을 멀리하라.

연로한 이들을 공경하라.

연소한 이들을 사랑하라.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안에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

불목한 자와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보라! 이런 것들이 영적 기술의 도구들이니, 우리가 이것들을
밤낮으로 끊임없이 채워 실천하고 심판의 날에 그것을 돌려
드리면,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니, “눈
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 해 주셨다”라고 약속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부지런히 실행할 장소
는 수도원의 봉쇄 구역과 수도회 안에 정주하는 것이다.

[2021년 3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화해의 성사

우리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월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알비노, 가밀라, 안셀모, 가시미로, 빠르빠뚜아,
프란치스카 로마나, 마틸다, 클레멘스, 치릴로
파트리치오, 요셉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에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달)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김동희(헬레나)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홍봉운(바오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정영도	노의선

[2021년 Daylight saving Time]

봄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시지요?
서머타임이 곧 시작됩니다.

3월 14일 다음 주일,

시계를 한 시간 당겨놓으시어

미사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토요일 4:00 pm

일요일 8:00 am, **9:15 am (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 미사 :
월 ~ 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사순시기 - 공동 보속]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시기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는 투병중에 계신 모든분들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매일 오후 3시**에 각자 계신 장소에서 **주모경 1번** 바치며 그분들과 함께 예수님 수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순시기를 지내려합니다.

- 십자가의 길 기도는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바침
- 사순시기 동안에 받는 고백성사는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고백성사 : 1) 매주일 미사전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
2) 평일에도 신부님과 미리 연락하시면 가능함.

● **2021년 레지오 수첩 배부**

각 빠르게시디움 단장님께서서는 꾸리아 단장님께서 일괄 주문하신 수첩을 사무실에서 받으시어 단원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줌(zoom) 활용한 온라인 사순특강]

(홈페이지 참조 : www.fec.or.kr)

- 일 시 : 2/23 - 3/23, 매주 화요일 밤 8:30 - 9:30 (뉴욕 시간)
- 유튜브로 중계되는 유료강의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접속링크가 제공됩니다.
- 강의 시간에 맞추어 링크를 클릭(누르면)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강의 일자, 주제와 강사(작은 형제회 소속)

일자	주 제	강 사
2/23	찬미와 권고의 삶	오상선 바오로 신부
3/2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루카 1, 54. 72)	정장표 레오 수사
3/9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	기경호 프란치스코 신부
3/16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박희전 루체치오 신부
3/23	팬데믹 시대의 형제애적 등불,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형제들"	김일득 모세 신부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